

Sector Brief

Overweight(Maintain)

2012. 9. 27

키움증권

유틸리티

정부 공공기관 재무관리방안 발표는 긍정적 변화

유틸리티 Analyst 김상구 02) 3787-4764
sangku@kiwoom.com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 발표 배경은 공공기관 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 제기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요금인상, 자구노력,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기대되며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정책 변화로 판단.

“2012 ~ 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방안을 마련 함. 발표 배경은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와 이로 인한 문제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정부는 ‘선 자구노력-후 정책지원’ 원칙하에 재무관리방안을 마련.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 노력과 물가위주에서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변화는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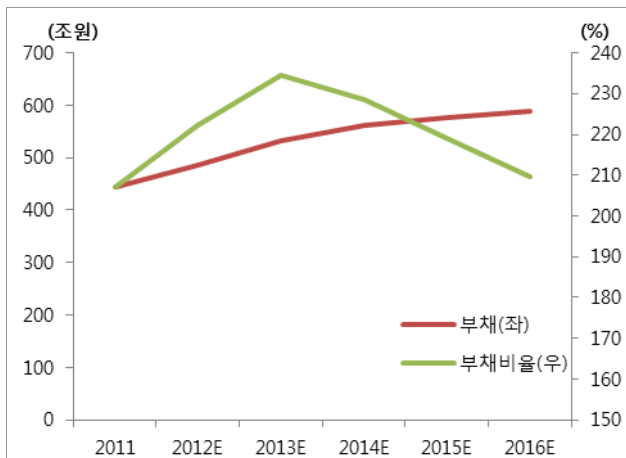
정부부채 급증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공공기관 부채 증가 뿐 아니라 정부부채 급증 역시 정부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GFS 2001 도입에 따라 정부부채는 344조원에서 773조원으로 증가. 한편 공기업이 민영화된 선진국에 비해 그렇지 않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부채는 실질적인 정부부채로 판단. 이 경우 실질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0%를 상회 함.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화 방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

정책의 공론화는 긍정적 변화를 가속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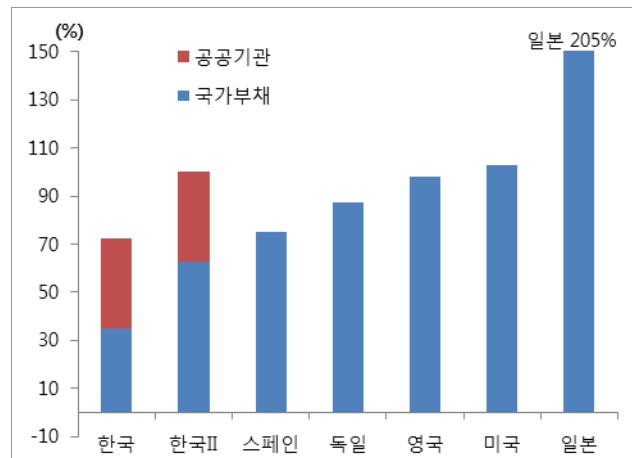
임박한 국정감사와 대선 정책 논의 과정 중에서 공공기관과 정부부채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정부정책 변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 한편 공공요금 산정기준 재검토 과정, 지경부가 12월에 밝힐 예정인 적정 전력요금 등 공공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궁극적으로 유틸리티 산업 재무구조 및 펀더멘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주요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정부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키움증권

실질 정부부채는 미국 수준, 재무구조 개선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



자료: IMF, 기획재정부, 키움증권(한국II는 GFS 2001 적용시)

- 당사는 9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